

본교 학과 구조조정, 그 결과는?

본교 구조조정은 이사회를 거치고 4월 30일 대학본부가 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모집단위에 대한 명칭과 정원수를 제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5월 1일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변경내역 안내' 게시물을 통해 최종 공지되었다. 학과 구조조정 최종 결과는 <표>와 같다.

2016학년도 신입학부부터 변경될 학부(과)

당시 응용인문학부로의 광역화 모집을 진행할 경우 한국어문학부와 지식정보학부의 교직이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광역화 모집안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진 응용인문학부의 경우 인문대학 내 응용인문학부 소속 국어국문전공(현 한국어문학부)과 문헌정보전공(현 지식정보학부)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에 속했던 세 전공 중 시각·영상디자인전공과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은 융복합디자인학부로 전공을 통합해 기존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로부터 분할되었다.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의 인테리어드esign전공은 인테리어드esign학과가 되었다.

패션디자인전공과 의류패션산업전공 두 전공이 속해있던 의생활학부는 두 학과를 통합하고 패션학부로 변경되었다.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부로 학과 통합되었고, 행정학과 야간과 공공인재학과 야간은 행정학과 야간으로 통합했다.

정보시스템공학과는 IT응용시스템공학과로, 정보통신학과는 전자정보공학과로 학과를 변경했다.

뷰티디자인학과 신설 돼

기존 신형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과가 있다. 바로 뷰티디자인 학과이다. 뷰티디자인 학과는 본교 평생교육원, 대학원에는 개설되어 있지만 학부에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신설됐다. 뷰티디자인 학과는 야간에 정원을 두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을 통해 학생을 모집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학과신설	-	뷰티디자인학과(야)
	-	융복합디자인학부(야)
학부분할 및 전공통합	시각·영상 전공	융복합디자인학부
	애니·제품 전공	
	인테리어 전공	
학과 변경	한국어문학부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지식정보학부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의생활학부	패션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IT응용시스템공학과
학과 통합	멀티미디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부
	행정학과(야) + 공공인재학과(야)	행정학과(야)

*5월 1일 본교 입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된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변경내역 안내 인용

집합 예정이다.

재학생은 모르는 학부(과) 통합·변경 결과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는 재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신입학 모집 요강을 공지하기 위해 입학 홈페이지에만 게재되었을 뿐 재학생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내가 소속된 학부(과)가 통합·변경 되는데도 재학생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각 학부(과)별 설명회나 간담회의 진행은 전적으로 해당 학부(과)의 재량에 맡겨져, 설명회나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은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 커

이번 본교 구조조정이 최종 결정이 났음에도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학내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A교수는 "소속 학과가 통·폐합 되는 데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이미 일부 교수들에 의해 결정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나머지 교수들에게 통보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B교수는 "이런 식의 졸속적인 학과 구조조정이 결국 우리 학과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일부 교수들의 횡포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마치 모든 교수들의 동의를 구해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학생은 "반대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됐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4월 2일에 진행된 2차 간담회도 결국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존재해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교수·학생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도 다수 존재했다. D학생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학과 경쟁력이 커지고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교수는 "정원 감축과 앞으로 대학이 맞이할 여러 정책과 이슈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학과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무작정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F교수는 "이러한 학과 구조조정은 논란이 될 중인데, 건국대, 그리고 우리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여러 대학들로 번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의견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했다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경우 2차 간담회 이후 성명서

를 작성해 학교 곳곳에 부착해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했다. 서명운동을 진행해 약 2천 3백 여 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학교는 이러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 결국 학생들의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2차 간담회 이후 개별 학부(과)별로 설명회가 진행된 곳도 있었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학생들 모르게 진행된 학교도 있어

4월 30일 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모집단위에 대한 명칭과 정원을 제출하기 전까지 고요했던 학교에서 학과 통·폐합 반대의 불씨가 붙은 대학들이 있다. 건국대, 중앙대, 그리고 본교의 경우 교수·학생들이 이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할 물리적 시간이 라도 있었지만, 몇몇 대학의 경우 교내 구성원들이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재학생들은 신입생 입시요강을 보고 본인의 소속 학부(과)가 통·폐합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통·폐합이 진행되는 도중 그 어떤 소식도 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홍익대학교의 경우 영상·영화전공과 애니메이션전공이 학내 구성원들이 모르게 통·폐합되었고 통·폐합 이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신입생을 위한 입시요강에서 '영상·애니메이션 전공'이라 적힌 사실을 한 재학생이 발견하면서 학과 통·폐합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학과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진행형

현재 본교의 학과 구조조정 결과가 나와 상황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학부(과)의 변경·통합안만 나왔을 뿐 그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른 효과성 역시 입증되지 않은 바이다. 또한 학내 구성원 간의 마찰과 불신 역시 겉으로만 소강되었을 뿐이다. 여전히 학과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부>

지면안내

사회

투쟁으로 뭉친 노동절(MAY DAY)

03



사람사
"더 뮤지컬, 박병성 편집장을 만나다."
"뮤지컬은 무대위 중합선물세트"

05

학술

연재기획④
종교의 역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06



문화

정보 영화의 주인공
책 라이언이 되는 순간!
오프라인 탈출게임

07



동정란

백성준(부동산학과) 교수
백 교수는 지난 4월 16일 조세일보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세계 정상화 토론회'에 참여했다.

스승의 날 맞이하여 카네이션 전달행사 열려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최치현(컴공 4) 총대의원회 정의장, 박은지(정통 3) 총대의원회 부의장, 박송희(정시 3) 학생복지위원회 부의장, 김재현(영문 3) 인문대 학생회장이 강신일 총장, 조혜경 기획협력처장, 조자연 총무처장, 홍정안 입학홍보처장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강신일 총장은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한성대학교 기법 모자를 담례로 건넸다. 강신일 총장은 "동식물들이 퇴비를 양분으로 삼으면서도 잘 성장하는 것처럼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

력이다"며 "학생들이 필요해 하는 것이나 건의하는 것들을 언제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최치현 총대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학생회장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게 된다. 강신일 총장은 "총대의장과 학생회장 두 역할을 수행하느라 힘들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최치현(컴공 4) 총대의장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다"고 답했다.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ac.kr

'2015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신청할 예정

지난 4월 17일, 교육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목표로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을 지원하려는 '2015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이하 ACE사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ACE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해 4년간의 지원을 통하여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 본교 역시 본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ACE사업에는 16개의 계속 지원대학과 새로 선정되는 13개를 포함해 총 29개 교 내외가 선정된다. 13개의 신규 선정대학은 수도권에서 5-6개교, 지방 8-9개교 등이 선정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매년 20억 원의 예산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평가 절차는 총 3단계로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최종 심의로 이루어진다. 평가지표는 기본교육여건(30%), 학부교육 발전 역량(30%), 학부교육 발전 계획(40%)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인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인원감축 규모에 따라 4~7% 미만은 3점, 7~10% 미만은 4점, 10% 이상은 5점으로 본교는 정원의 8.6%를 감축해 가산점 4점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내달 20일까지 대학 별로

신청서를 받아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6월 말에 15년도 ACE사업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대학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초·중등교육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재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대학운영의 가장 큰 재정 요인이 등록금, 법인지원, 국가 보조금, 기부금이다. 그러나 법인지원은 없고 기부금은 몇 개 대학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금을 제외하고 국가 보조금이 유일한 재정 수단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보조금을 평가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처음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학들은 교육여건이 향상되어 추후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학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원감축에 따른 가점과 대학 간의 경쟁을 과열시키는 재정지원사업은 정원감축과 대학 서열화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혜진 기자 dhgpwls0424@hansung.ac.kr

미래관 앞 싱크홀 발생 학생들의 안전 우려돼



▲지난 4월 16일 오후 8시 이후 미래관 앞 공사장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본교 시설지원팀 관계자는 급수라인 부분에서 누수되어 땅이 침하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후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보강 공사 전까지 싱크홀 균열을 콘크리트로 막고 빨간색 구조물로 표시하였다. 공사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싱크홀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통행에 유의해야 한다.

오혜진 기자 dhgpwls0424@hansung.ac.kr

본교 매년 '학과 평가제' 시행할 예정

평가 결과 하위 학과의 입학정원을 상위학과 또는 신설학과로 배정

〈학부(과) 실적평가 평가영역, 평가지표, 반영비율 및 평가방식〉

평가영역	평가지표	반영비율	평가방식
연구역량(40)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10	대외비교(수도권 유사수준 대학 유사학과)
		10	대내비교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10	대외비교(수도권 유사수준 대학 유사학과)
		10	대내비교
교육역량(40)	전임교원 강의비율	10	대내비교
	전임교원 1인당 교양강의 담당학점	10	대내비교
	복수전공/부전공 이수비율	5	대내비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상담비율	5	대내비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실적	10	대내비교
교육성과(60)	중도탈락률	15	대외비교(수도권 유사학과)
		15	대내비교
	취업률	15	대외비교(수도권 유사학과)
		15	대내비교
대학기여(10)	발전기금 실적	10	대내비교
총계(%)		150	

〈상시정원조정 기준〉

평가등급	A등급(15%)	B등급(25%)	C등급(40%)	D등급(20%)
감축비율	0%	0%	당해연도 정원의 10%이내	당해연도 정원의 20%이내

본교는 이번 학기부터 매년 조직 단위 실적 평가, 즉 학과 평가제를 시행한다. 학부(과)가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대학의 장단기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 발전 가능성과 교육 연구의 우수성, 사회적 수요,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운영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와 학생정원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학과 평가는 학사년도(당해연도 3월-익년도 2월) 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학부(과)에 A-D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한 학과 평가제의 평가 영역은 연구역량(40), 교육성과(60)로 평가 등급에 따라 C등급은 학부(과) 정원의 6%, D등급은 12%를 감축해야 한다.(A등급과 B등급은 정원 감축 제외)

이러한 학과 평가제는 다음 학기부터는 평가영역이 더 추가된다. 연구역량(40), 교육역량(40), 교육성과(60), 대학기여(10)의 평가영역을 총

15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각 영역별 평가지표는 〈학부(과) 실적평가 평가영역, 평가지표, 반영비율 및 평가방식〉과 같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감축된 정원은 A등급, B등급을 받은 평가 상위학과 또는 신설학부(과)로 배정된다.

이러한 학과 평가제는 타 대학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육대는 본교와 마찬가지로 매년 학과 평가를 통해 하위학과의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원을 상위 학과로 배정한다고 알려졌다. 학사구조 개편으로 논란이 된 건국대 역시 마찬가지로 알려졌다.

한편, 본교의 학과 평가제의 경우 대학기여 평가영역에서 발전기금 실적을 반영해 "발전기금이 왜 평가지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비에 맡겨두어야 할 부분을 대학 본부가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KG패스원 공무원 강좌수강, 더욱 편리해져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반갑만한 소식이 있다.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KG패스원 공무원 강좌수강이 더욱 이번 학기부터 편리해졌다. 본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KG패스원 공무원 강좌는 공무원 7/9급, 공인중개사, 회계사·세무사, 스포츠지도사 강좌로 나누어진다.

특히 15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공무원 7/9급 강좌의 수강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재학생들이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었으나 이제 신청과정없이 초과학기이수자와 휴학생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강좌는 기존 30명으로 제한되었던 수강인원을 100명으로 확대 됐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지도사 강좌가 수강인원 20명으로 신설되었다. 공인중개사와 스포츠지도사 강좌를 원하는 학생들은 경력개발지원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좌들은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하다. 엄정훈(학술정보팀) 과장은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면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미래관 ELC에서 '21세기의 한국교육'이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 주삼환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심석교육 특강 시작에 앞서 신재홍(교원양성교육과정 및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육적 특성을 지닌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교직원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교직원 특강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덕목을 갖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교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선정돼

본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었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3학년·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학업학과와 체계적인 산업체 전일제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이다.

본교는 이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5년동안 연간 약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IPP 사업은 행정학과와 야간 학생을 제외한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10개 학과 학생 150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IPP 사업단장을 맡은 조세홍(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공학·상경 계열로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행정학과와 야간 학생들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제외되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IPP 사업단과 참여 학과 교수들은 기업을 섭외해 협약을 맺고,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기업으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현재 협약된 기업

체는 총 53곳으로, 학생선발은 6월경에 진행된다.

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과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최저임금수당으로 총 월 12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실습기간에 따른 학점인정은 최대 1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습이 학기 중에 실시됨에 따라 부족한 전공 교과목은 방학 중 전공 계절 학기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무료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기업과 학생 간 고용을 매칭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학생들에게는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높임으로써 취업률을 올릴 수 있어 학생에게도 학교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설명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우리들의 작은 가게 Season3 '청춘 셀러파티' 개최해



▲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가게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우리들의 작은 가게 Season3 '청춘 셀러파티' (이하 우가게)가 열렸다. 우가게는 자신이 정한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창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올해는 총 48팀이 지원했으며 그 중 20팀이 선발됐다.

이들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25만 원을 기반으로 예코백, 디퓨저, 마이보틀 에이드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들 가운데 예코백을 판매한 이소라(영어영문 4) 학생은 "작년에 판매했던 예코백의 반응이 뜨거워 이번 우가게에도 또 한번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가 계기를 밝

오혜진 기자

dhgplw0424@hansung.ac.kr



▲ 지난 6일 오후 8시 미래관 DLC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4학년 학생들이 이번 학기 실습을 바탕으로 서로의 실습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실습 총평회'가 진행되었다. 교육실습 총평회에 앞서 신재홍(교원양성교육과정 및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한 달간의 교실실습이 앞으로 교직자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지난 8일 오전 10시 미래관 DLC에서 한국어과정 봄학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봄학기 수료인원은 110명이다.

2015학년도 후기(정시)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전형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2015. 5. 11 (월) 10:00 ~ 5. 18 (월) 17:00	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 100%인터넷접수 (우편·방문접수 불가) - 접수 시작일과 마지막 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지원 가능	▶ 수험표는 출력하여 구술·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외국인유학생은 접수전에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입학상담을 한 후, 접수하여야 함
서류 제출	2015. 5. 18 (월) 17:00마감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교학팀 (학송관 208호)	▶ 출력원서 및 구비서류를 동봉 ▶ 방문, 등기우편, 택배 제출
구술면접	2015. 5. 23 (토) 10:00 ~	전형일 전날 대학원홈페이지 공고 및 학과에서 지원자 개별 통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수험표 지참 ▶ 구술면접전형 시작 최소 10분전 도착
합격 발표	2015. 6. 12 (금) 14:00 ~	본 대학원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합격자조회메뉴	▶ 수험번호 등을 입력하여 합격자 조회
등록금 고지서출력	2015. 6. 19 (금)	본 대학원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합격자조회메뉴	▶ 수험번호 등을 입력하여 등록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2015. 6. 19 (금) ~ 2015. 6. 26 (금)	등록금고지서상의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합격후 등록기한 내에 미등록시 입학포기자로 간주하여 자동 불합격처리됨

※ 대학원·학과(전공)에 따라 전형 일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별 안내)

모집학과 및 전공

(1) 일반대학원 (주간) - 신입학, 정원외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계열	모집학과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 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석사	사회계	무역학과	일반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사회계	문화정보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산업경영학과		
			행정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공학계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제·부동산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경영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정보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회화학과				
		의류패션산업학과(모집없음)	의류패션산업학과(모집없음)				
예·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예·체능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모집없음)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모집없음)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석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학기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사회학과					
		영미문화학과					
			문화정보학과				

3학기 편입학전형, 재입학전형

- 해당 대학원 학과(전공) 사무실 또는 대학원교학팀으로 반드시 별도 문의후 접수

편입학/재입학 여식이 있고 지원 가능한 대학원·학과(전공)

일반대학원(석사), 경영대학원(경영, 호텔관광외식경영), 행정대학원(행정, 사회복지), 예술대학원(패션디자인기회, 뷰티예술), 부동산대학원, 교육대학원

(2) 특수대학원 (야간) - 신입학, 정원외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계열	모집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글로벌창업경영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사회계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예술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미악미술학과
			패션디자인기획학과
			뷰티예술학과
국방과학대학원	석사	사회계	안보전략학과
			국방경영학과
			국방M&S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개발전공, 부동산개발및관리전공, 지적및토지관리전공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 모집인원은 각 학과 ○명/○○명

*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3급, 상담전문사 3급,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등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

문의처

▶ 대학원교학팀(학송관 208호) ☎ 02)760-4271
▶ 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구비서류 및 전형 세부사항 확인)

투쟁으로 뭉친 노동절(May Day)



▲ 5월 1일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이 서울시청광장 앞에 모였다.



▲ 경찰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최루액과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다.

5월 1일은 노동절(May Day)이다. 이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각의 노동자들이 연대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휴일이다. 한국의 노동절 행사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최초로 진행되었다. 1948년 이후 폭력화를 이유로 전평의 페이데이 행사가 금지되었으나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이 노동절로 정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력과 투쟁 끝에 5월 1일 노동절 행사가 매년 진행될 수 있었다.

지난 1일 노동절(May Day)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2만여 명(주최 측 예상·경찰 추산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일반 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확대 및 법제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조합원 5만여 명(주최 측 예상·경찰 추산 2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진행하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행사에

서 '끝내자 박근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대통령령 폐기,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의 연설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사에서 한 위원장은 "싸우지 않고 무엇을 쟁취할 수 있는가, 투쟁하지 않고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침몰하는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다시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노동자-민중의 목숨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연대선언 발표와 한국노총 공동투쟁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의 대회에서 양대 노총 임원들의 상호 연대발언을 통해 공동결의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각종 지원과 매뉴얼, 지침, 개악입법 추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며 5-6월에 진행될 투쟁을 예고했다.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전명선(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위원장이 무대에 섰다. 전 위원장은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며 큰절을 올렸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운 엄마,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자 대통령령 폐기, 진상규명 등을 함께 해 달라"고 외쳤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민주노총은 세월호유가족 편에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했다. '2015년 세계노동절 대회'는 끝으로 구조를 외치며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작했다.

5만여 노동자들은 순서대로 맞춰 행진을 시작했다. 먼저 금속노조 조합원 3천여 명은 종로2가 인사동에서 조계사 방향으로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을 세우고 돌아갈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조합원 몇 명이 경찰차 바퀴를 줄로 묶어 당기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액과 소화기를 난사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조합원들은 사전에 준비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채 경찰에 맞섰다. 건설노조 조합원들도 낙원상가를 거쳐 안국동 방면으로 진출했지만 경찰에 막혔다.

이후 노동자들은 종로2가 사거리로 집결하여 다시 집회를 진행하였다. 수많은 노동자 연대 깃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대학생 단체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년하다', '성공하다 총학생회', '한신대 총학생회' 등 본 대회에서 가려져 들리지 않던

이들의 목소리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귀에 들려왔다. 대학생들은 경찰차를 당기거나 경찰과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비파와 경찰차에 낙서를 하는 퍼포먼스 등 그동안의 방식으로 불만을 표했다.

하인도(한신대학교 문예창작 4) 총학생회장은 "세월호 참사와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참가했다"며 "대학생은 예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읽고 세상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노동절 대회는 곳곳에서 대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후 7시경 세월호 유가족들과 흠여져있던 노동자들도 합류하였고 수차례 경찰의 경고가 들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발언은 이어졌고 2일 오전까지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졌고 5월 1일과 2일 이틀간 42명이 경찰에 연행되며 마무리되었다.

일각에서는 폭력으로 노동절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거리로 나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ac.kr

정치 를 본다

말과 글

최근 말의 힘을 새롭게 느낀 일이 있었다.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판어론은 다수 매체가 이자스민 의원의 장남 7씨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담배 200여갑을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벌어졌다. 하지만 해당 편의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담배가 분실된 사실은 있지만, 7씨가 훔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도는 정황이 없다고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절도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유승희 의원이 경중을 올려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마침 유승희 의원의 최고위원 연이 있었던 날, 청년유니온 활동가로 일하는 지인과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 활동가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청년유니온에서 성명을 내려고 할까 제안할까 고민했었어요. 보통 편의점 사장들이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을 했을 때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편의점 사장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훔쳐 임금 체불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펴 봐야겠지만, 이자스민 아들도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가 높아 보이고, 문제가 되자 물건이 없어져서 그랬다며 말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황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참 문제야 한다. 특히, 그 대상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보편적이고 공정한 시

각 위에 기반한 비판이 아님을 지적하고, 이를 자체해결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의 이 발언은 많은 언론에 실렸고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발언을 했다며 칭찬을 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도는 소수자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근거로 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유승희 의원이 경중을 올려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절도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유승희 의원이 경중을 올려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보통 편의점 사장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훔쳐 임금 체불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펴 봐야겠지만, 이자스민 아들도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가 높아 보이고, 문제가 되자 물건이 없어져서 그랬다며 말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황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참 문제야 한다. 특히, 그 대상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보편적이고 공정한 시

정치인의 말과 글에서 시작했지만, 타인을 향한 나의 말과 글은 어떤지 이 글을 쓰는 내내 돌아보게 되었다. 많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애써 나를 도덕인다.

시작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들이 비난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리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치우친 생각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인 이슈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진실을 알기 전에 "저들은 이렇 것이다."라는 선입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행동을 공정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불완전하고, 편협하고, 선입관에 근거한 사고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 사안에 대한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일지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또한 우리 사회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그의 의견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정치인의 말과 글에서 시작했지만, 타인을 향한 나의 말과 글은 어떤지 이 글을 쓰는 내내 돌아보게 되었다. 많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애써 나를 도덕인다.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

대학구조개혁에 맞선 대학 구성원의 외침

비가 내리던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으로 우비를 입은 수십 명의 사람이 모였다. 그들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대학생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로 이뤄진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로 저마다 소속된 단체는 달랐지만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구성원 429 총파업 투쟁결의대회에 모인 이들이었다.

대회사에서 주영재(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대학을 우후죽순 만들어놓고는 이제 와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대학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며 "심지어 김희정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 총파업을 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른바 '김희정 법'(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자진해산 법안 실행자의 생계 지원 ▲자진해산 시 수익금 재산으로 자동전환 ▲상속·양도 시 증여세·가산세 면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당 법인 귀속 등의 특례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연(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김희정 법"이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교직원들과 시설노동자들은 하루아



▲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대학구조개혁법 폐지하라!'며 외치고 있는 모습.

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학생들은 배움터를 잃게 된다. 그런데 부실대학에 책임이 있는 실패자는 대학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며 "김희정 법은 대학구성원만 손해 보는 법이다"고 말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참가인원은 늘어났다. 그들은 비로 젖은 맨몸에 영덩이를 데고 앉았다. 미리 온 대회 참여자들도 그런 그들을 위로하는 듯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연(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김희정 법"이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교직원들과 시설노동자들은 하루아

이 우리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재정압박을 당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시설 노동자들을 제일 먼저 해고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와 투쟁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결의문 낭독은 노중기(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종열(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회장, 김동욱(전국대학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한성(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함께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교육주체 단결투쟁 대학 공공성 쟁취하자!"를 외쳤다.

투쟁에 참여한 윤기욱(충북과학고 교내 직원) 씨는 "대학이 정부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며 "이번 계기로 대학구조개혁 전면수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참가소감을 전했다.

이날 투쟁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대학구조개혁법 폐지하라!"고 외치며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탈자 없이 10분간 행진이 이어졌고 도착 후 15분간 집회가 이어졌다.

비록 민주노총의 연대지명파업으로 진행된 대회였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 교수, 시간강사, 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 구성원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ac.kr

2015년 제10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한성인 글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대회 내용

- 대 상 : 한성대학교 재학생
- 목 적 :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일 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실제 글쓰기 시간 100분
- 장 소 : 낙산관 대강당
- 문제출제 : 대회 당일 현장 공지
- 심사일정 : 1차 2015년 5월 22일(금) ~ 5월 27일(수)
2차 2014년 5월 27일(수) ~ 6월 2일(화)
3차 2015년 6월 3일(수) ~ 6월 5일(금)
- 시 상 식 : 총장실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신청 및 시상

- 신청 기간 : 5월 7일(목) ~ 5월 20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2주간)
- 신청 방법 : 1) 사고와 표현 연구실 방문 신청
2)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청
3) 사고와 표현 강의 시간에 담당 교수님께 신청
- 준비 사항(대회 당일) : 신분증(학생증 혹은 주민등록증), 필기 도구(반드시 볼펜 사용)
- 시상 내역 및 상금 : 1) 최우수상 1명 - 상금 40만원
2) 우수상 4명 - 상금 15만원
3) 장려상 8명 - 상금 5만원
* 수상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유의 사항 : 대회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의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낮선 이들의 호출, 달갑지만은 않다



교단에서

나은미 교수
(상상력 교양교육원
사고와표현교육과정)

“카톡” 요즘 어디서나 쉽게 들 수 있는 소리이다. 나 역시 왜 카톡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귀찮기도 했고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1년쯤 전에 프로그램을 내려 받았다. 시작과 동시에 오래 전 내 삶에 잠깐 들어왔던 사람에서, 그냥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저장했던 사람에서, 심지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다.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했다.

문제는 단체방에 가입하고서였다. 어떤 계기로 함께 모였든 사람들이 개설한 단체방에 초대된 적이 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대는 “카톡” 소리가 시달렸다.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보지 않을 자유도 없었다.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안길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때로 그러한 일상의 정보들이 다음 대화의 맥락이 되기도 해서 가끔씩이라도 봐야 했다.

섭섭함을 안기지 않기 위해 본 카카오톡 창에는 강아지 사진, 음식 사진, 풍경 사진 등 갖가지 것들이 올라왔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모티콘들과 함께, 이런 사진들이

때로 휴식이 되기도 했다. 휴식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때로 없던 식욕과 물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일어나 공부의 흐름을 깨 놓기도 했다. 바쁜 일이 있어 한 이틀쯤 카톡을 보지 않은 어느 날 300이라는 숫자가 떠 있는 것을 보고 결국 난 그들의 섭섭함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서 단체방을 나왔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 더구나 나에게 의미가 되지 않는 정보들 때문에 피곤하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메일함을 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메일에 답장을 하거나 지우는 일, 친구를 수락해달라는 메일을 지우는 일도 일상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우지 못한 메일과 광고 메일들로 꽉 찬 메일함을 열 때마다 비우라는 명령어를 보고 한다.

몸에 지나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신속한 연락과 피드백 등 일을 처리하는데 다양한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더 빠른 일처리 덕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빠른 일처리와 더 많은 정보

의 수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

이제 옆의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받는 등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가족 간에도 필요한 말만 문자나 카톡으로 한다는 사람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카톡으로 대화를 하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하든 당사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난 좀 불편하다. 불편함은 이렇다. 아무 때나 불러내는 것, 보지 않을 자유가 없는 것, 무엇보다도 일상의 소소함에 열중하고 싶는데 그 흐름을 깨놓는다는 것이다. 나는 대화하고 싶을 때,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온몸으로 하는 대화만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소소한 즐거움에 몰입을 위해, 그리고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하기 위해 때로 카톡을 멈추고 싶다.

헤라클레스의 화살과 케이론



기자수첩

최혜정 기자
(의배 2)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를 비롯해서 아킬레우스, 이아손 등 여러 영웅들의 스승이 있다. 바로 켈타우로스족의 케이론이다. 그의 인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선했으며 그는 정신적 스승으로 이름을 날렸다. 많은 영웅들은 그에게 전술, 사냥술을 비롯해 음악과 윤리까지 가르침을 받았다.

‘영웅에게 웬 예술과 윤리? 영웅에게 이것 말고 전술이 더 중요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무 리 뛰어난 검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더 바르게, 윗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윤리와 같은 인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겐 모든 학문의 근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가 도래했다. 사실 이 말은 어찌 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문학도는 이 시대의 찬밥신세 혹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젊은이들의 우스갯소리인 ‘인구론’(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과 ‘문송합시다’(문과여서 죄송합니다)는 현실에 대한 그들의 자조적인 인식이 녹아있다.

실상가상으로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에 세 사회의 모진 칼바람이 또 한 번 불었다. 청주대를 시작으로 불어온 통·폐합의 바람은 분교뿐만 아니라 건국대, 중앙대, 홍익대 등의 서울권 대학을 뒤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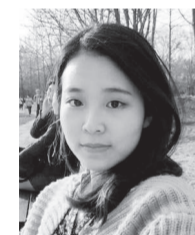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모진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초’학문이다.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기초’와 ‘실용’의 구분은 학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학문에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인문학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이다. 뉴턴이 인문학적인 영감을 통해 만유인력의 가설을 입증했으며, 괴테는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갖고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신화에서 케이론은 불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았다.

오늘날 헤라클레스의 활시위는 케이론을 향하고 있다. 당신은 케이론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나. 가르침을 잊은 활시위가 활을 떠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되는 바다.

X포세대 이제 그만



낙산에 올라

김채령
(경명 2)

‘삼포세대’에 뒤이어 ‘오포세대’, ‘칠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다. 신조어의 근간인 삼포세대의 어원을 살펴보면, 2011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 『북지국기를 말한다』 특별 취재팀 즉, 언론에서 만든 단어이다. ‘삼포세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20~30대의 젊은이들을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일컫는 말이다. 삼포에 추가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것이 오포세대이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가 바로 칠포세대이다.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 것이다. 취업난은 점점 심해지는 데에 비해 학비와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 삼포세대를 처음 들었다. 당시에는 안타깝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새

로운 세계에 대해 호기심도 가득한 세대가 20~30대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값진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우리들에게 ‘포기’를 먼저 이야기 해 주고 있다. 바닷길 배가 나가기도 전에 부정적인 말로 선장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십 가지의 포기를 하는 것보다 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X포 세대’의 포기 항목은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포기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포기보다는 ‘선택’이라 생각한다. 경제적인 원인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사고 변화로 인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

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삶을 살아가고 싶기에 싱글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X포 세대’, ‘XX 못’ 한다 등 부정적인 단어 선택으로 현재 한 세대를 사회적 적정거리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20~30대에게 과거 사고의 잣대를 내세우며 비판하는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혼자 배를 이끄는 선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언론은 올바른 현실 직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무한한 잠재력인 20~30대에게 긍정적인 여론으로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삼포’를 세 가지 포기가 아니라, 20~30대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어떤? 열정, 사랑, 사람.

· 사 설 · 대학 구조조정,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

2014년 1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축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2023년까지 16만 명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올해는 대대적인 학과 통·폐합을 위한 과정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학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건국대의 통·폐합, 중앙대의 모집단위 광역화 등 모두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 자체의 질실함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강요당하는 당위성이나 필연성 없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인과학과,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살려야 하고 나머지 학과는 통·폐합되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대학의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도 이르던 학과가 비인기학과가 되어 지금은 통·폐합 대상이 되어 있음은 감안한다면, 인과라는 것은 늘 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교육부가 아쉽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자체조차 법안이 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가 연이어 대학 자율조정을 강조하는 걸 보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해 온 대학구조개혁이 그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쯤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 이런 패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 진정 대학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은 어떤 것인지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눈앞의 작은 이익에 일회일비하여 흔들리지 말고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넓고 큰 원칙에 비추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은 이곳에서 미래 비전을 보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한 신뢰 있는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문예술분야를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학과란 이유로 사라지게 하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진정으로 대학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학만이 가지는 특성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 하에 세워져야 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우선이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히 단계적으로 성과를 이뤄가며 믿음이 쌓일 수 있는 대학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열정만이 우리 대학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 삼 학 송 · 운명의 수레바퀴

지난 봄 대학가를 들쭉신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 광역화가 마무리되었다. 2016학년도 신입학 모집 정원을 공고함으로써 결국 그 끝을 본 것이다. 몇몇 학교에서는 학과 통·폐합을 두고 학생들이 반대하는 바람이 이를 저지하고자 했고 몇몇 학교는 신입학 입학정원 공고를 보고 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기도 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공급하는 인력과 산업 수요 간 미스 매치가 심각하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지난해 정원 감축 이후 올해 새로운 쓰나미를 맞이한 것이다.

대학들은 운명의 수레바퀴에 올랐다. 학교의 규모, 재단의 크기, 학생 수 등 학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교육부의 정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부의 입맛에 맞도록 학교의 체질을 개선해야한다는 점에서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소속된 학교와 학과, 학년은 다르지만 학교의 일반적인 학과 통·폐합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미 학과 통·폐합이 열렸던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를 반대하

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학과 교육부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에서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학문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비인기 기초학문과 인문학은 정리대상 1순위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았다던 기업들과의 수요와 맞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인문학과 기초학문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교육부가 말하는 인문학과 기초학문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어떻게 굴러갈까? 교육부의 정책으로 철저히 취업양성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대학은 취업이 잘되는 대학으로서 ‘취업 특성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하다.

이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대학 역시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며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대학만이 진정한 대학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주 빠른 속도로 굴러가고 있다. 굴러가면서 인문학과 기초학문을 가볍게 내던지며,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의미를 내던지며, 그런데 말이다. 빠르게 굴러가는 이유는 그 길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재원 편집국장

직업교육기관화가 되어가는 대학



독자칼럼

이수빈
(무역 2)

많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왜 가려고 하니?”라는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취업하려고요.” 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나 또한 똑같은 대답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다. 언제부턴가 대학이 직업교육기관화가 되어가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전 학번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깊이 있는 전공분야의 학습과 학문 탐구였지만 그 이후 학번들부터는 취업을 위한 뒷받침 및 발표를 마련해준다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2015년인 현재, 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기조 아래,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을 고등교육 분야 목표로 삼았다. 그럴싸해 보이는 이 정책은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에 올인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학교도 겪고 있는 산업 수요 중심의 정원 조정이나 기업과 연계한 채용 조건형 제

약학과를 확대시키는 등 교육의 본질보다는 경제 혁신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학과 통·폐합의 이야기를 할 때도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만들이 많이 나온다. 또한 올해 새로 개설된 강의들은 교육 관련이 아닌 취업대비용 강의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완화되지는 커녕 작년 청년층 실업률이 9%로 2000년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무리 대학에서 산업 수요에 맞게 변화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비정상회담’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안건 중에 대학입시와 관련한 안건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시청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입시를 중

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많지 않을뿐더러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에 별 지장이 없고 대학을 가는 이유는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서 더 깊이 연구하고자”라고 한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내내 힘들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왔고 졸업까지 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나의 미래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에 외국의 학생들이 부러웠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수요에 맞게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낙산만평

한지선(매디 2)

모두의 회피 때문입니다.



아주 사적인 시간 『더 뮤지컬』 박병성 편집장을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뮤지컬은 무대 위의 종합선물세트”



▲ 공연전문지 『더 뮤지컬』에서 발행된 잡지들이다.

공연전문지 『더 뮤지컬』을 아시는가. 뮤지컬 ‘덕후’라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배우가 손톱 크기로 보이는 자리마저도 값비싸 아무리 ‘덕후’라 한들 자주 뮤지컬을 보기는 힘들다. 그럴 때 『더 뮤지컬』을 읽다 보면 뮤지컬에 대한 욕구가 해결된다. 뮤지컬보다 더 재미있는 뮤지컬이야기가 빠듯한 글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람 인에서는 코너기획에 맞게 사심을 가득 담았다. 뮤지컬 ‘덕후’들의 필수 아이템, 『더 뮤지컬』의 박병성 편집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더 뮤지컬』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더 뮤지컬』은 2000년 7월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현재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뮤지컬 전문지예요. 뮤지컬 작품 소개, 배우와 스태프 인터뷰, 매달 하나의 이슈를 밀도 있게 다루는 기획

기사 등 『더 뮤지컬』은 다양한 뮤지컬 소식을 전하고 있고 국내 뮤지컬 소식 뿐만 아니라 뮤지컬의 메카인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통신문을 두어 해외 뮤지컬 시장에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을 기록하는 역사서이자, 친절하게 뮤지컬을 소개하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뮤지컬 에디터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생 때부터 미당극이나 연극, 영화제 등 다양한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국문과 출신이어서 글 쓰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희곡을 써보기도 하고 방송드라마도 조금 썼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청소년 문화잡지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졸업 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곡을

쓴다고 해도 직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취직할 것이었죠. 물론 취업을 했지만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공연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후 뮤지컬 잡지 『더 뮤지컬』이 창간되었고 『더 뮤지컬』 전 편집장님이 제가 일하던 청소년 문화잡지에 글을 기고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아 『더 뮤지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뮤지컬 에디터로서 한 달에 뮤지컬 몇 작품을 보시나요?

뮤지컬과 연극 무용 다 합치면 한 달에 최대 열 다섯 작품을 봐요. 뮤지컬만 최대 열 작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작품 볼 때도 있고 대부분의 한국 뮤지컬이 더블캐스팅 방식이어서 사실은 캐스팅마다 챙겨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챙겨보기도 쉽지 않고 또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면 같은 작품을 반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

아요. 봐야 하는 작품에 비하면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뮤지컬 에디터로서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뮤지컬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만난 것 같아요. ‘스위니토드’와 ‘컴퍼니’, ‘숲속으로’ 등을 작곡한 스티븐 손드하임을 만난다면 영광이겠죠. ‘에비뉴Q’와 ‘The Book of Mormon’의 제작자이자 겨울왕국 ‘let it go’의 작곡가 로페즈 부부도 만나보고 싶네요. 제작년 ‘에비뉴Q’ 오리지널 팀 내한했을 때 그 부부도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그들의 진가를 몰라봤었어요. 그 부부는 굉장히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매우 밝고 명랑한 작품을 만드는데 그들의 작업스타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뮤지컬 에디터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더 뮤지컬』은 매체이면서도 공연계의 일원입니다. 매체로서 잘못을 지적하고 단호하게 평가하는 것에 맞는 것 인지 공연계의 일원으로서 잘못을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매번 혼란스럽죠.

저와 관객 간의 나이 차이 때문인지 독자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물론 잡지사도 젊은 기자들도 있어 그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는 재미없었던 작품이 표가 없어 보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경우라든지, 그때마다 ‘잡지를 읽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작품이 있다면?

『The Book of Mormon』이 궁금해요. 브로드웨이에 갔을 때 이 작품을 보려고 했는데 예매를 하지 못해 보지 못했어요. 벌써 3년째 공연되었지만 아직도 브로드웨이에서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죠. 특히나 재미있게 봤던 작품인 ‘에비뉴Q’의 제작자인 로펠즈부부가 제작해서 더 보고 싶어요.

뮤지컬 ‘맨오브리만차’도 좋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레미제라블’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에비뉴Q’, ‘스프링어웨이’, ‘멘트’ 등 좋아하는 작품은 많아요.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국에서도 ‘레미제라블’이 공연됐는데 굳이 일본에서 공연된 ‘레미제라블’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뮤지컬 작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작품이 어떤 프로덕션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한국에서 공연된 ‘레미제라블’은 재미 없었어요. 얼마 전 양준모씨가 일본에서 공연한 ‘레미제라블’을 보고 나서 참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은 28년째 레미제라블을 공연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식 라이선스를 수입한 초연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수록된 노래들은 훌륭하지만 그 진가를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한국 ‘레미제라블’도 각각의 노래마다 드라마를 잘 전달하려면 좀 더 완벽하게 작품을 이해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공연되지 않은 외국 작품 중 한국에서 공연되었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면?

『The Book of Mormon』이 궁금해요. 브로드웨이에 갔을 때 이 작품을 보려고 했는데 예매를 하지 못해 보지 못했어요. 벌써 3년째 공연되었지만 아직도 브로드웨이에서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죠. 특히나 재미있게 봤던 작품인 ‘에비뉴Q’의 제작자인 로펠즈부부가 제작해서 더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영화로 개봉했던 뮤지컬 ‘숲속으로’라는 작품도 한국에서 공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에서 영화

로 만들긴 했지만 뮤지컬 작품으로써의 ‘숲속으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숲속으로’는 동화를 비튼 내용인데 동화를 찬양하는 디즈니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모순되지 않나 생각해요.

한국에서 공연됐던 외국 작품 중 다시 공연했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면?

뮤지컬 ‘리틀샴오브호러스’인데 공포의 꽃게에서 외계 식물의 피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외계 식물이야기예요. 노래들이 재미있고 경쾌하죠. 한국에서 ‘지킬앤하이드’를 제작한 ‘오디킵 퍼니’가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 2005년 한국에서 공연했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시대를 앞서간 느낌일까요. 이제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공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유일 뮤지컬 잡지인 『더 뮤지컬』만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최종 목표는 한국 뮤지컬과 공존하면서 오래 살아남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연 잡지가 독자적으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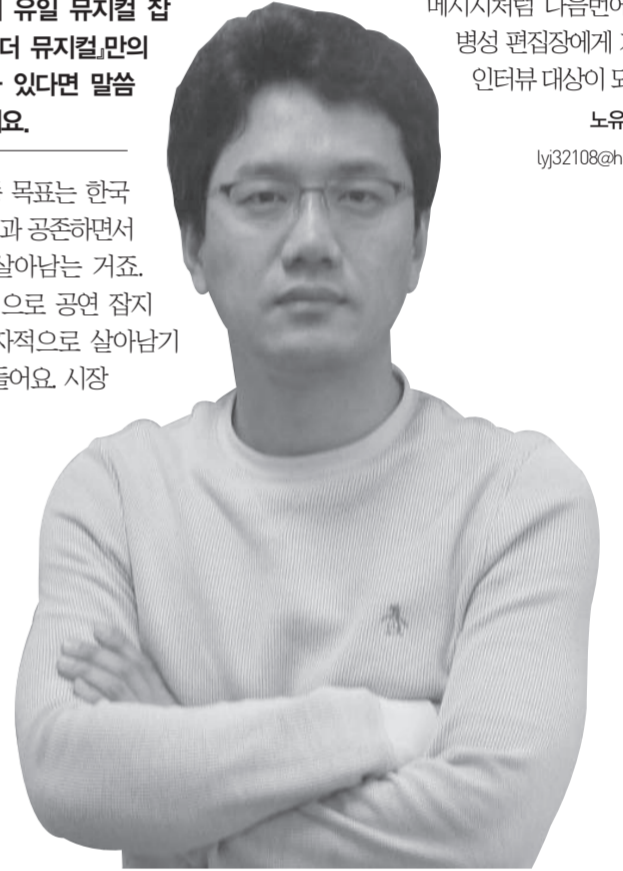
자체가 작고 지지하는 독자층의 끈끈함이나 연대도 필요하죠. 『더 뮤지컬』이 지난 10년 동안 발행되면서 독자 수가 컸어요. 뮤지컬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지만 발행하는 것은 공연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뮤지컬과 함께하며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연 잡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웃음꽃이 만개했던 기사는 인터뷰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기사로 답을 수 없는 내용을 더 많이 물어보았다. 몇 권의 뮤지컬 관련 서적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있다. 박병성 편집장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더 뮤지컬』 100호를 기념하여 출판된 책 ‘백 번의 만남 서른두 번의 기억’에 사인을 부탁했다. 사인과 함께

적힌 ‘공연계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메시지로 다음번에는 박병성 편집장에게 기사가 인터뷰 대상이 되리라.

노유진 기자
lyj32108@hansung.ac.kr



▲ 『더 뮤지컬』 박병성 편집장의 모습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항상 곁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한국에서 패션을 배우는 몽골 학생 할리온

- 이름: 시열바트르 할리온 (Soyolbaatar Khaliun)
- 국적: 몽골
- 나이: 25살
- 학과: 패션디자인전공



▲ 할리온이 부산 앞 바다에서 찍은 사진.

한국에 온지 벌써 4년이 지났다. 한국생활 4년 차답게 한국 사람들이 친근한 사이끼리 하는 욕에 놀라지 않고, 한국 드라마와 핑클의 성유리를 좋아한다는 그녀.

올해 패션디자인전공 3학년 1학기부터 편집학을 한 할리온과 인터뷰를 나눴다.

한성대 패션디자인과에 편입해 공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년 전 몽골에서 유학 학위를 통해 한국에 와서 국립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녔어요. 한국어가 서툴러 건축학과 전공 수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3학년이 되어서도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동대문에 쇼룸을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은 패션스타일이 좋

아요. 평소에도 옷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옷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도 러시아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계셔서 원래 패션이나 옷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적성에 맞지 않는 건축학과보다 지금부터라도 패션디자인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올해 3학년 1학기부터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으로 편입하게 됐어요.

편집을 하셨는데 학과 생활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3학년 1학기부터 다녀서인지 학과 학생들과 많이 친해진 같아요. 한성대학교에 다니는 몽골 친구들과 많이 다니죠. 한국인 친구는 외국인 멘토링 튜터랑 친하게 지내요. 튜터는 의류패션산업전공이어서 같은 수업을 들긴 않지만,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갈 때 같이 가요. 한성대학교는 외국인 센터도 있고 멘토링 제도도 있어서 유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졸업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졸업 후에는 몽골로 돌아가지는 않고, 패션디자인을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에요! 당장 지금은 한성대학교에서 패션디자인 수업을 빠짐없이 배우고가고 싶어요.

옷의 모습이 예쁜 할리온 학생. 그녀는 한국에서도 꿈을 향한 당찬 발걸음을 단단히 내딛는다. 이제 막 한 학기를 보내고 있는 그녀의 앞일을 응원하는 바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글: 그림 최혜정(의대 2)

놀고 싶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네
벌써 과제가 폭탄이러니 말도 안돼

왜~!!! 축제때 화끈하게 놀면 되지!!
아 기대된다

...??
그런데 우리학교 공사중인데?

...응?

그럼 다른 대학 축제 놀러가면 되지!

즐길 때 즐기고, 할 때 하면 되지!

◆ 학술 기획연재

부재와 억압

〈부재와 억압의 역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에 초점을 맞춘 학술 기획연재다. 역사 속에서 발생한 부재와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부재와 억압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연재 기획>

- ①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지의 부재
- ② 남녀는 과연 천리 앞에 평등 했다
- ③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러진 교편
- ④ **종교의 억압 -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 ⑤ 묶여버린 펜, 빼앗긴 권리, 언론의 억압

④ 종교의 억압 -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한 가닥 불길에 들뜬을 태우고 한 줄기 물이 하늘까지 차오르는 것 같으니, 마침내 그 폐해는 오랑개가 중국 문화를 어지럽히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이만재, 『벽위편』

조선 서학,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시작하다

통치이념부터 생활양식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던 조선시대의 유교. 이러한 배경에서 천주교는 어떻게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처음, 천주교는 ‘서학’ 또는 ‘천학’이란 학문으로 연구되었다. 서학은 17세기 초에 서양 근세의 과학기술과 더불어 북경에서 들어왔고 극소수의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머물렀다.

하지만 그 이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서학의 연구는 활성화됐다. 숙종 때 송시열을 중심으로 노론이 정권을 잡자 여기에서 소외된 양반들은 자연히 성리학 지상주의를 비판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는 천주교 사상 외에도 실학사상, 양명학 등이 연구되었다.

서학, 남인 위주로 확산되다

서학은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서학은 정계에서 소외된 남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 이유로는 조선시대 선비의 두 가지 덕목인 수기치인을 들 수 있다. 수기치인은 자기를 수양하는 수기와 타인을 바르게 다스리는 치인으로 나뉘는데 남인들은 수양의 한 방법으로 서학을 연구했다.

서학을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벽과 이승훈을 들 수 있다. 서학에 대

한 호기심으로 이벽은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된 이승훈에게 북경교구에 찾아가서 서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했다. 이벽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온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 후 서학을 중심으로 서학에 대해 활발히 연구했다.

이벽과 이승훈 뿐만 아니라 정약용과 이가환은 뛰어난 인품과 학식으로 그 시대에 칭송을 받던 인물들이었다. 정약용과 이가환이 서학에 심취하자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서학을 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자학만이 진리가 아니며 서양의 학문도 뛰어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학은 어떻게 종교로 자리잡았나

이렇듯 서학은 남인들 위주로 자발적으로 수용되어 점차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서학이 확산되자 천주교회의 활동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8세기 말에는 중국에서 주문모 신부를 영입하는 등 조직적인 교회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세기 초에는 천주교의 교세가 급속도로 확산돼 교인이 1만 명으로 늘어났다.

종교억압의 불씨가 담겨지다

정조시대에는 천주교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왕실에서조차 천주교 신자가 나오고 관리들은 오히려 이를 변호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정세는 안정돼 있어 천주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정조는 “이러한 종교는 유학의 진흥으로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박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조 즉위 후 집권세력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굳히게 되었다. 이는 조선이 유학을 이데올로

기로 삼고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통치이념에 입각한 많은 사대부들은 천주교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조상도 모시지 않는 폐륜의 종교로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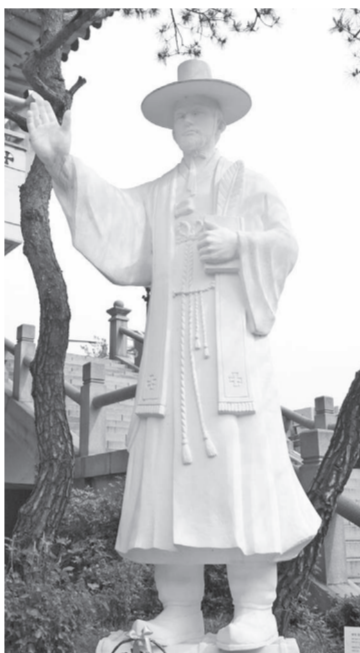
신유박해가 일어났던 순조의 즉위 기간에는 정치적으로 희생된 인물이 너무나 많았다. 순조는 재위 당시 11살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정정을 했다. 신유박해는 정순왕후가 정권 강화 차원에서 남인 세력을 몰라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천주교는 남인들 위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천주교 박해는 남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석이었다.

신유박해의 피바람이 불다

신유박해가 발생하기 전,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온 신부가 한 명 있다. 바로 주문모 신부다. 주문모 신부는 북경교구의 지시로 조선에 선교를 하러 왔다. 주문모 신부의 선교로 인해 천주교는 급히 확산되었다.

하지만 곧 정순왕후의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남인의 대표 세력인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에 대한 탄핵은 박해의 시발점이었다. 정치인들을 향한 갈날은 곧 천주교인들에게까지 겨누어졌다. 주문모에 대해 수배령이 내려지자 주 신부는 조선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탄압받는 천주교인들을 본 주문모 신부는 결국 자수하기에 이른다. 주문모 신부는 1801년,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종교 탄압은 여름이 지나자 더욱 살벌해졌다. 9월 황사영 백서사건이 터졌다. 황사영은 교인들이 수난을 당하는 것을 비통히 여겨 제천방 배운의 토굴 속에서 장문의 편지를 쓴다. 이는 조선 교회의 참상과 교회의 재



신유박해의 피바람이 불다

건책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서양의 배 수백 척과 군대를 조선에 보내 조선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었다. 황사영은 이를 북경 천주교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백서가 사전에 압수되었다. 이 내용을 읽은 조정은 황사영과 관련자들을 즉각 처형함과 동시에 천주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천주교도 색출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었고 300여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다. 정순왕후는 이를 기회로 이가환을 사형시키고 정약용을 유배보냈다. 이때 대표적인 순교자로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있고 체제공, 김한동 등이 관직을 박탈, 유배당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천주교를 믿었는가

정부의 거센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계속 퍼져만 갔다. 신유박해 이후에도 기해박해, 병오박해, 병인박해들이 행해졌다. 이렇게 모진 박해 속에서도 천주교가 종교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재건(전 연세대 신학과)교수는 “유학의 사회에서는 내세관이 분명치 않았다. 반면 서학은 사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이 극심하던 시절 남녀 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조선의 수많은 농민은 양반들이 토지 겸병으로 점차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도매상인들이 상공업을 지배하여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사회모순이 나타났다.

이러한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당시 백성들에게 천주교는 하나의 마음의 안식처로써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최혜정 기자 hipo9@hansung.ac.kr



정크푸드(junk food)를 먹어도 괜찮다고?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등을 일컫는 정크푸드는 주로 고열량이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크푸드에도 면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 4명 중 1명은 정크푸드를 먹어도 건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은 찌더라도 고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심장마비, 당뇨병, 뇌졸중 등의 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실험은 비만인 사람 20명의 체중을 6% 늘리기 위해 몇 달 동안 하루 1,000kcal 정도의 정크푸드를 먹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실험자는 원래 비만체중에서 7kg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저항성,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지방 간 등 비만과 관련해 만성적인 병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크푸드를 먹었음에도 체중만 늘어나고 만성적인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지방 조직 내 유전자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신진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 쉽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체중이 늘어도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다. 즉, 비만이더라도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사람은 지방을 조정하는 유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만성적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는 체중이 증가하는 만큼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신진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활성화 현상을 볼 수 없다. 똑같이 체중이 증가해도 신진대사의 영향에 따라 각각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에는 유전자 외의 특정 식사, 생활 습관, 심리적 영향, 장내 세균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크푸드를 먹어도 무조건 면적이 생길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혜진 기자 dhgpwls0424@hansung.ac.kr

美生 여걸들의 이야기

어우동의 억울한 죽음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1457~1494)은 여색을 좋아했던 인물이었지만, 한편으로 성리학적인 윤리를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왕이었다. 남성과 달리 여성들의 재혼을 법적으로 금지한 왕이 성종이었다. 이른바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재가금지법’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 법으로 수많은 과부들이 고독과 굶주림 속에 홀로 살아야 했다.

성리학적인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추구하다보니 희생양이 나오는 것은 필연이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조선 최고의 성 스캔들을 일으킨 어우동이다. 어우동은 15세기 중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남편은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 이동이다. 왕실의 친척과 결혼한 어우동은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었고, 이것이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성종은 어우동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자유분방한 여성들의 성도덕에 일침을 가했다.

어우동 사건에서 우리는 어우동의 간통만 알지 남편 태강수가 기

생 연경비를 사랑하여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 그 시절 양반 남성이 기생을 사랑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간통죄는 공장 1백 대였지만, 어우동은 사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철은 어우동의 사형을 반대했다. 규정된 법을 넘어서 엄한 벌을 사용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종은 국왕권을 남용한 것이었다. 세종 때에도 어우동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감동이라는 여성인데, 세종은 감동을 죽이지 않고 노비로 만드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사형까지 시킬 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우동은 사형을 받았지만, 당시 그녀와 관련된 양반 남성들은 모두 풀려났다. 게다가 관직에도 다시 나가고 출세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어우동의 천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뜻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조선시대 남자들은 부인 외에도 기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첩을 얻어 살 수 있었다.

남자들은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유로 부인 외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관대했다. 반면에, 여자들은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기 힘들었다. 어우동은 이러한 불평등한 성윤리의 희생자로 볼 수 있다.

『용재총화』를 쓴 조선전기 문인 성현(成愼)은 “왕이 풍속을 바로잡고자 어우동을 사형까지 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고, 멀리 귀양 보내는 것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우동을 사형에 처하게 한 것은 성종의 선택이었다. 실제로 그녀가 죽은 뒤에 “성종이 어우동을 사형에 처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선시대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반역을 했거나 살인을 했을 경우로 그 이외의 죄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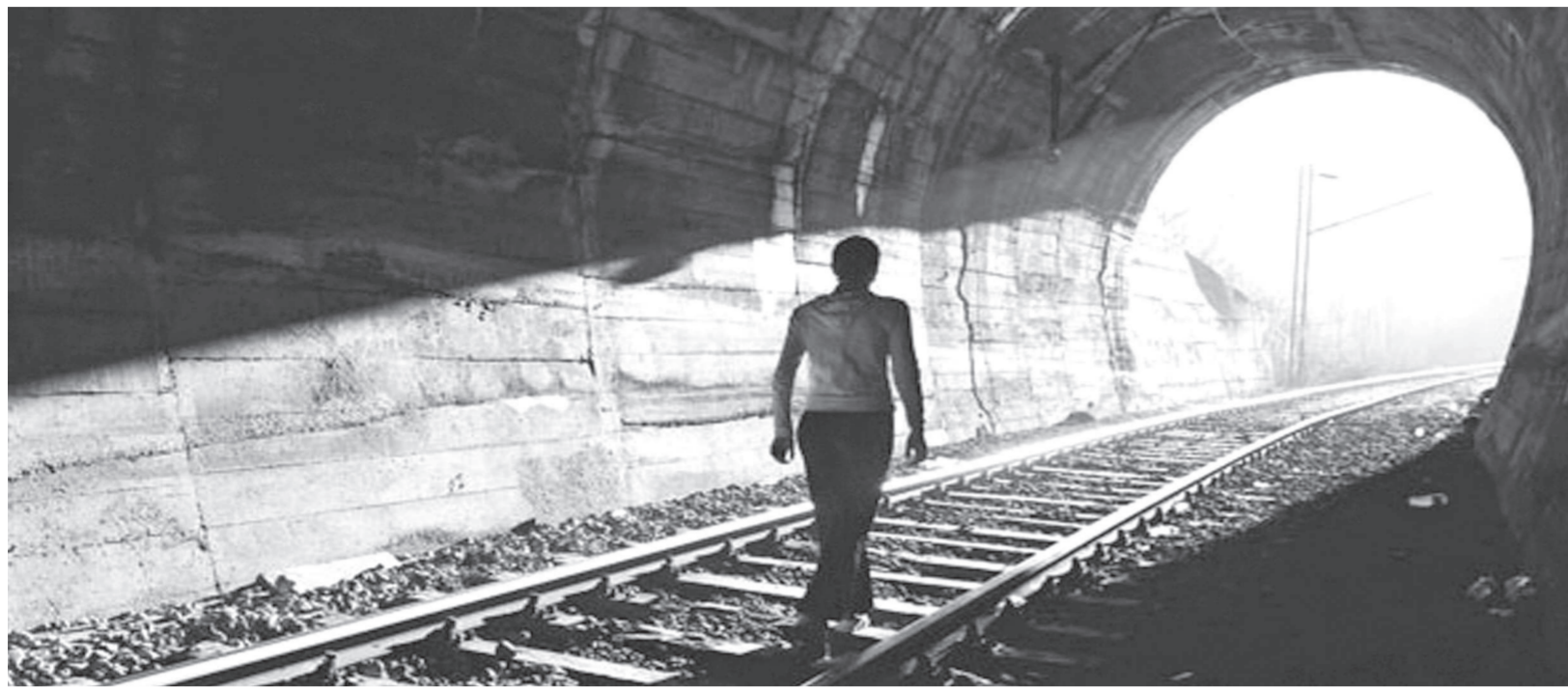
정성희

실학박물관 책임학예사



▲ 신유박해에 중국인인 주문모 신부가 순교한 새남터. 현재 이 곳에는 새남터 성당과 새남터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다.

첩보영화의 주인공 잭 라이언이 되는 순간 오프라인 탈출게임



평소 첩보 영화와 미국 추리드라마를 즐겨보는 기자는 한 번쯤 자신이 스파이가 되는 상상을 한다. 검은 색 트랜치코트에 검은 정장. 선글라스를 쓴 자신은 발걸음 소리도 나지 않는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중년 남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의문의 코드가 주소임을 깨닫고 남자의 집에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방안에 들어가자 등 뒤로 문이 잠겼다. 아찔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탁자위에 중년 남자가 남긴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때 팡-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린다. 제한시간 60분.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기자는 지금 잭 라이언(탈출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오프라인 탈출게임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4명이 한팀이 되어 힌트를 찾아 미션을 풀고 방을 탈출해야 한다. 기자는 재빨리 방 안을 훑었다. 우선 방 안의 물건을 모두 살살이 뒤져야 한다. 찾은 힌트는 탁자 위에 있었다. 디테일한 소품들을 구경할 시간이 없다. 각기 모양이 다른 자물쇠들과 알 수 없는 코드들. 팀원들은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힌트를 조합하자 다른 방문이 열린다. 비밀의 방 안에는 새로운 미션들이 기다리고 있다.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 이번엔 쉽지 않다. 문제를 풀지 못하고 애를 먹는 사이 시간은 흐른다. 마음이 급하다. 연신 모니터 속 제한 시간을 살폈다. 다급해진 참가자들에게 다시 팡-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니터 위로 주어진 힌트. 그제야 팀원들은 이 수수께끼가 생각보다 단순한 논리였음을 깨닫는다. 모니터로 주어지는 힌트마저도 긴장감을 더했다.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각자의 역할이 나뉘었다. 누군가는 얻은 힌트들을 메모하고, 다른 팀원은 자물쇠를 열었다. 암호해독에 집중한 사람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팀워크는 중요하다. 한 명이 쓰레기통 속 중요한 힌트를 찾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암호를 해

독할 코드를 잘못 적었다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탈출에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힌트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페이지 힌트였던 것. 알고 보니 탈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이 같은 함정에 오래 빠져버리는 순간 탈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방콕부터 파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이런 오프라인 탈출게임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4월과 5월 흥대와 강남에 차례로 오프라인 탈출게임이 오픈했다. 인기가 더해질수록 힌트는 더 교묘해지고 수수께끼는 더 정교해졌다.

게임의 난이도는 어떻게. 탈출 성공률은 15%대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야 해결하는 재미가 있다는 참가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다. 강남 이스케이프의 김태윤 대표는 "한 번은 남자 다섯 분이 힌트도 없이 20분을 남기고 탈출한 적이 있다. 보통은 탈출하지 못하거나, 힌트를 받고 겨우 탈출한다"며 흥미진진한 설명을 이어갔다.

탈출을 못 하는 건 아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전에 힌트의 개수를 정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참가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얻거나 뻔한 탈출 경로는 오히려 게임이 끝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6분을 겨우 남기고 탈출한 기자는 이번엔 경찰이 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간 친구를 구하려 한다. 기회는 단 한 시간이다.

이때가 되면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얻거나 뻔한 탈출 경로는 오히려 게임이 끝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6분을 겨우 남기고 탈출한 기자는 이번엔 경찰이 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간 친구를 구하려 한다. 기회는 단 한 시간이다.

이때가 되면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얻거나 뻔한 탈출 경로는 오히려 게임이 끝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6분을 겨우 남기고 탈출한 기자는 이번엔 경찰이 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간 친구를 구하려 한다. 기회는 단 한 시간이다.

이때가 되면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얻거나 뻔한 탈출 경로는 오히려 게임이 끝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독할 코드를 잘못 적었다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탈출에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힌트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페이지 힌트였던 것. 알고 보니 탈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이 같은 함정에 오래 빠져버리는 순간 탈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방콕부터 파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이런 오프라인 탈출게임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4월과 5월 흥대와 강남에 차례로 오프라인 탈출게임이 오픈했다. 인기가 더해질수록 힌트는 더 교묘해지고 수수께끼는 더 정교해졌다.

게임의 난이도는 어떻게. 탈출 성공률은 15%대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야 해결하는 재미가 있다는 참가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다. 강남 이스케이프의 김태윤 대표는 "한 번은 남자 다섯 분이 힌트도 없이 20분을 남기고 탈출한 적이 있다. 보통은 탈출하지 못하거나, 힌트를 받고 겨우 탈출한다"며 흥미진진한 설명을 이어갔다.

탈출을 못 하는 건 아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전에 힌트의 개수를 정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참가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6분을 겨우 남기고 탈출한 기자는 이번엔 경찰이 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간 친구를 구하려 한다. 기회는 단 한 시간이다.

이때가 되면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얻거나 뻔한 탈출 경로는 오히려 게임이 끝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6분을 겨우 남기고 탈출한 기자는 이번엔 경찰이 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간 친구를 구하려 한다. 기회는 단 한 시간이다.

이때가 되면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얻거나 뻔한 탈출 경로는 오히려 게임이 끝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6분을 겨우 남기고 탈출한 기자는 이번엔 경찰이 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간 친구를 구하려 한다. 기회는 단 한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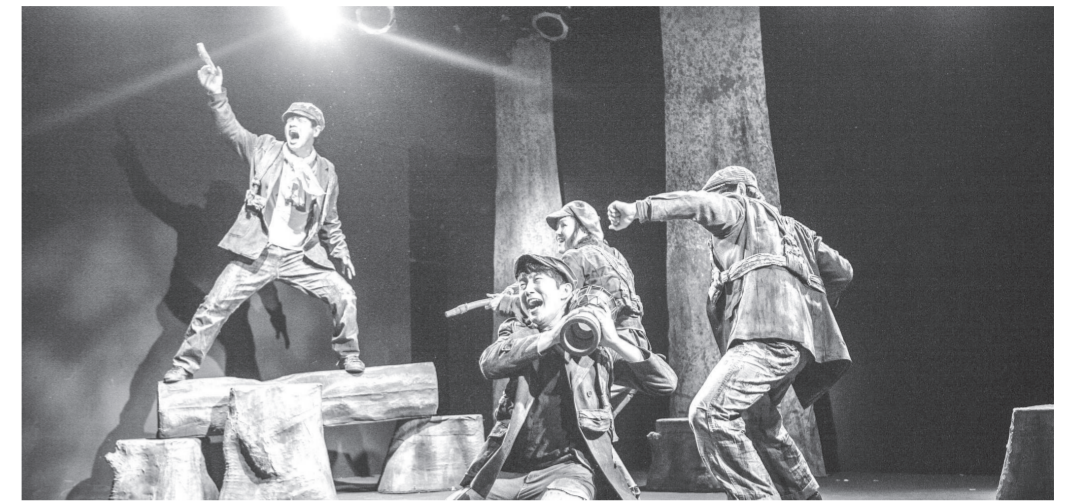
이때가 되면 탈출게임은 스스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얻거나 뻔한 탈출 경로는 오히려 게임이 끝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추리드라마나 액션 첩보 영화에서 더이상 스티일이 느껴지지 않는가? 온라인 탈출게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직접 잭 라이언이 될 차례다.

BACKSTAGE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배우, 극본, 연출가들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극을 소개한다.

연극 <게릴라 씨어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극’을 하는 그들!”

대학로 곳곳에서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깊게 파고든 연극이 있다. 극단아리랑과 극작가 오세혁이 손잡은 연극 <게릴라 씨어터>다. <게릴라 씨어터>는 게릴라들에게 연극을 지도한 브라질 연극 연출가 아우구스토 보알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다.

글을 모르는 남미 정글의 빈농 출신 게릴라들은 자신들이 왜 정부에 맞서는지 마을주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어 보알에게 연극 지도를 부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고자 했다. 그런데 보알이 연극 지도에 올 때마다 게릴라의 인원이 줄어 있었다. 정부군과 계속 전투를 치르던 게릴라들이 한명씩 전사했던 것이다. 어느 날 보알이 정글에 와보니 게릴라가 두 명뿐이었다. 2명의 게릴라가 연극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자 보알은 "대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들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답한다. 이 가난한 빈농 출신의 겁쟁이 게릴라들은 연

극을 통해 자신들이 공감한 게릴라가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문을 걸어왔던 것이다.

웃음 가득한 90분 동안 어설론 게릴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극작가 오세혁은 "겁쟁이들이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용기 있는 척 하는 연극이다. 세상의 무자비한 정글 곳곳에서 벌벌 떨면서도 한 걸음씩 헤쳐 나가는 위대한 겁쟁이들을 위한 연극"이라 말한다.

게릴라들은 정부로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이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제 발로 정글로 들어간다. 게릴라들은 '연극'을 통해 말한다. 우리 모두 똑같은 인간이고 세상 모두가 차별과 탄압,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이다. 배불리 먹고 인간답게 사는 것. 이를 이루기 위한 겁쟁이들의 작은 발걸음이야말로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 아닐까.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Q1. 학술 조순순조 1801년, 천주교 박해의 명칭은?
Q2. 문화 제 24회 저자와의 만남에서 강연한 성재환 교수의 저서는?

• 추천방법 •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연극 <게릴라 씨어터>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발송하여 주세요.

• 지난해 당첨자 •
502호 연극티켓 당첨자
· 김은영(한국어문 4)
· 박수민(정치 4)
· 정연수(사각영상 4)
· 홍희원(경제 3)

당첨자는 신문사로 방문해 연극티켓을 수령해 가지면 됩니다.

경제학의 눈으로 르네상스를 바라보다 제24회 저자와의 만남 열려



▲ 성재환 교수가 피렌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제24회 저자와의 만남이 미래관 DL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저자와의 만남은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저자인 성재환 교수와 함께 진행되었다. 위 저서는 르네상스를 예술과 문화로만 바라보았던 기존 시각과 다르다. 경제학과인 저자가 새로운 관점

을 통해 르네상스를 이끈 상인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성재환 교수는 피렌체는 과연 예술가와 시민만의 이상적인 세계인가라는 물음의 답으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르네상스는 돈과 권력, 종교, 사상이 난무하던 시대였다"며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피렌

체는 르네상스의 꽃이라 부를 만 하다"고 말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상인들의 후원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었다. 성 교수는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후원자의 요구나 감사 메시지를 엿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상인들의 종교와 사상이 녹아있는 예술작품은 피렌체를 예술의 도시로 불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연을 마친 후 그는 "저자와의 만남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돼 영광이다"며 "학생들이 열중해서 듣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오늘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강연 소감을 전했다.

강의를 들었던 유내(역사문화 4) 학생은 "역사문화 학부에서 그런지 강연이 인상 깊었다. 저자가 경제학과 교수님이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신선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저자와의 만남을 주최한 정미영(학술정보팀) 차장은 " 그동안 저자와의 만남이 자기계발소로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 저자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자와 본교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hip06@hansung.ac.kr

Seoul Mercant Initiative 서울경제대역사연구소

정글 속 게릴라들의 레볼루션 메소드

게릴라 씨어터

소극장 아리랑

2015. 4. 22 ~ 5. 31

화수목 8시 | 금요일 5시 8시 | 토, 일 3시 | 공연료 3,6시

작 오세혁 연출 고동업

제작 극단아리랑 기획 주다컬처 후원 서울문화재단 (주)디와이엘씨 문의 주다컬처 070-4355-0010 극단아리랑 02-741-5332

출연 김기흥 이영주 손경원 김미영 김신용 민대식 김현준 박영남 전민선

드라마투르크 전성희 음악 경민아 연주 이혜영 안무 최하야 조명 남궁진 의상 김시경 분장 김소희 무대 오태훈

본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의 2015년도 '서울메시니저'사업의 지원금으로 추진됩니다.

제 9 회 사진공모전

프레임의 독백
눈으로 듣다



■ 응모기간

4월 13일 (월) ~ 5월 20일 (수) 오후 7시까지

■ 참가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 공모전 주제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 응모방법

사진공모전 신청서와 작품을 한성대 신문사에 직접 제출
(사진은 8×10 크기로 인화)

■ 작품 제출 장소

한성대 신문사 (학생회관 제1별관 2층)

■ 사진공모전 신청서

<http://bitcloud.in/s/534>

■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504호 (6월 1일 발행)

■ 상금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40만원

가작 (1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문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진공모전_신청서를 작성해 응모작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우수상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한성대 신문사